공동체를 잇는 공통 언어로서의 영어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인구조사 기록

이 정책의 성공은 싱가포르 국민이 가정에서 쓰는 언어로 가장 분명하게 측정됩니다. 인구조사(census)와 일반가구조사(General Household Survey)는 5세 이상 거주자에게 가정에서 가장 자주 쓰는 언어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 답변은 한 세대 만에 일어난 변화를 보여 줍니다. 1990년에는 18.8%가 영어를 꼽았습니다. 이 비율은 2000년 23.0%, 2010년 32.3%, 2015년 36.9%, 2020년 48.3%로 높아졌습니다. 2025년에는 58.1%에 달했습니다.[1]

같은 기간 표준중국어는 상승했다가 하락했습니다. 표준중국어는 2000년 거주자의 35.0%, 2010년 35.6%가 가정에서 가장 자주 쓰는 언어였으나, 2020년 29.9%, 2025년 26.6%로 감소했습니다. 2000년에도 거주자의 23.8%가 가정 언어로 쓰던 중국어 방언은 2020년 8.7%, 2025년 4.9%로 떨어졌습니다. 말레이어는 2000년 14.1%에서 2025년 7.0%로 감소했고, 타밀어는 같은 기간 3.2%에서 2.2%로 떨어졌습니다.[2] 다른 모든 언어가 영어에 자리를 내준 것은 60년에 걸친 언어정책의 가장 눈에 띄는 결과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모든 공동체의 가정에 자리 잡은 영어

이러한 변화는 세 주요 공동체 모두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계 거주자 사이에서는 2020년 영어가 47.6%로 가정에서 가장 자주 쓰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이들 중 47.7%가 표준중국어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3] 아동에 관한 수치는 변화의 방향을 더 뚜렷하게 보여 줍니다. 2010년 5~14세 중국계 아동의 52%와 말레이계 아동의 26%가 가정에서 영어를 썼는데, 2000년에는 각각 36%와 9.4%였습니다.[4] 이 아이들은 이제 대략 21세에서 30세가 되었으며, 영어 원어민으로서 금융중심지의 인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또한 영어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통계청(Department of Statistics)에 따르면 가정에서 영어를 가장 자주 쓰는 거주자의 과반수는 모어나 방언도 두 번째 가정 언어로 사용합니다.[5] 전형적인 싱가포르 가정은 이중언어 가정입니다. 영어는 학교와 직장의 언어이고, 표준중국어, 말레이어 또는 타밀어는 조부모, 명절, 종교의 언어입니다. 이 짝의 나머지 절반은 제J편 제II장에서 살펴봅니다.

다원사회의 공통 언어

영어는 싱가포르에서 다른 어떤 언어도 수행할 수 없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영어는 중국계 관리자, 말레이계 공무원, 인도계 변호사, 유라시안 은행가가 서로 대화하는 언어이며, 동시에 이들 모두가 금융중심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주재원 및 외국 고객과 대화하는 언어입니다. 대부분의 싱가포르 국민이 사는 공공주택 단지에서는 민족 할당제가 여러 공동체를 같은 동에 섞어 놓습니다. 영어는 보이드 덱(void deck), 시장, 학교 정문의 언어입니다.

정부는 이 공통 언어를 사회 통합의 기둥으로 여깁니다. 영어는 제J편 제IV장에서 살펴보는 개방적 노동시장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인도, 필리핀, 영국, 호주, 미국 출신의 외국인 전문인력은 현지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첫날부터 싱가포르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공하는 아시아 금융중심지는 많지 않습니다. 도쿄, 서울, 상하이, 심지어 홍콩에서도 영어만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은 현지 사업과 공적 생활의 상당 부분에서 소외된 채로 남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선택의 비용

영어의 부상에는 싱가포르가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비용이 따릅니다. 첫째는 중국어 방언의 소실입니다. 제A편에서 설명한 상인 네트워크가 사업을 하던 언어인 호키엔어, 조주어, 광둥어는 이제 소수만이 가정에서 씁니다. 많은 젊은 중국계 싱가포르인은 조부모와 대화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모어에 대한 압력입니다. 2010년 이후 가정 언어로서 표준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가 쇠퇴하는 것은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중언어를 국가적 자산으로 여기는 정부를 우려하게 합니다. 리콴유 자신도 2009년, 여러 세대의 학생들이 이중언어 고수로 인해 "paid a heavy price"라고 말했습니다.[6]

셋째 비용은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것입니다. 영어를 쓰는 가정의 아이는 영어를 거의 쓰지 않는 가정의 아이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합니다. 영어 능력은 대학 진학과 최고 보수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유리함은 성인기까지 이어집니다. 넷째는 새로 온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 2월 야당 대표 프리탐 싱(Pritam Singh)은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영어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2023년 4월 CNA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이 구상을 환영했습니다.[7] 이 논쟁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중립 언어로 선택된 지 두 세대 만에 영어가 얼마나 국가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주

1. Wikipedia, "Languages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인구조사 및 일반가구조사에 근거한 가정에서 가장 자주 쓰는 언어 표: 영어 18.8%(1990년), 23.0%(2000년), 32.3%(2010년), 36.9%(2015년), 48.3%(2020년), 58.1%(2025년). 2020년 수치는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Census of Population 2020, Statistical Release 1*, 가정 언어에 관한 장에 해당함. 2025년 수치는 Wikipedia가 일반가구조사 2025를 보도한 CNA 2026년 6월 30일 기사를 출처로 인용함.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2. Wikipedia, “Languages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같은 표: 표준중국어 35.0%(2000년), 35.6%(2010년), 29.9%(2020년), 26.6%(2025년). 기타 중국어 변종 23.8%(2000년), 8.7%(2020년), 4.9%(2025년). 말레이어 14.1%(2000년), 9.2%(2020년), 7.0%(2025년). 타밀어 3.2%(2000년), 2.5%(2020년), 2.2%(2025년). ↩

3. Wikipedia, “Singapore English”(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The Straits Times*, 2021년 6월 16일 인용: 영어는 중국계 거주자가 가정에서 가장 자주 쓰는 언어가 되었으며 그 비율은 47.6%. 2010년에는 이들 중 47.7%가 표준중국어를 첫 번째로 꼽았음. ↩

4. Wikipedia, “Singapore English”(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10년 5~14세 중국계 아동의 52%와 말레이계 아동의 26%가 가정에서 영어를 썼으며, 이는 2000년의 36%와 9.4%에서 증가한 수치임. ↩

5.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Census of Population 2020*, 가정 언어에 관한 인포그래픽: 가정에서 영어를 가장 자주 쓰는 거주자의 과반수가 “also spoke a mother tongue language or dialect as a secondary language”. ↩

6. Wikipedia, “Speak Mandarin Campaig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09년 리콴유는 이중언어 고수로 인해 “successive generations of students paid a heavy price”라고 말했음. ↩

7. Wikipedia, “Singapore English”(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3년 2월 프리탐 싱은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영어 시험을 주장했으며, 2023년 4월 3일 발표된 CNA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이를 환영했음.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